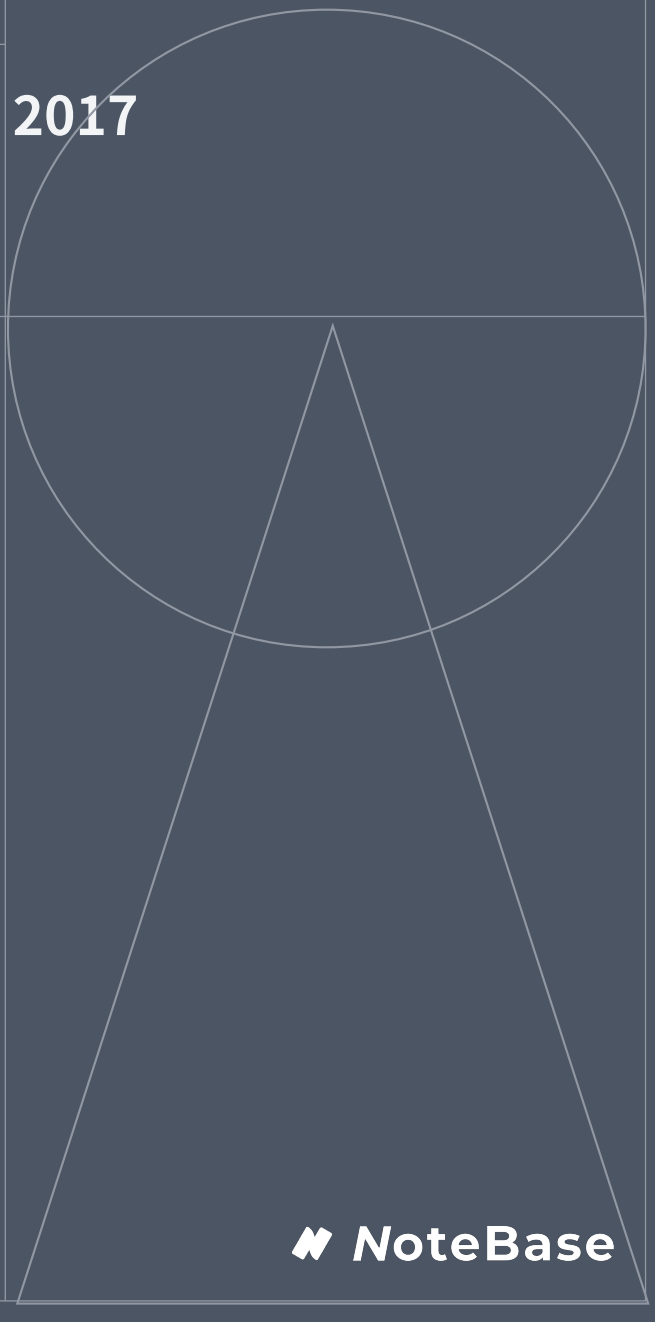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17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17

문 1. 맞춤법이 옳은 것은?

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댓가를 치뤄야 한다.

②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왠지 멋있어 보인다.

③ 살코기는 장에 졸여 먹고 창자는 젓갈을 담궈 먹는다.

④ 명절에 아랫사람들은 윗어른께 인사를 드린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일상에서 발음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어휘의 표준 표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대가/댓가', '치르다/치루다', '조리다/졸이다', '담그다/담구다', '웃어른/윗어른'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틀리기 쉬운 단어들이 함께 출제되었다.

핵심 개념

한자어 '대가(代價)'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고 '대가'로 적는다(뒷말이 된소리로 나지 않는 한자어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 표기 대상이 아니다). '치르다'는 '치러, 치렀다'로 활용하며 '치루다'라는 말은 없다. 고기·채소를 국물에 조려서 만드는 음식은 '조리다'를 쓰고, 눈물이나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은 '졸이다'를 쓴다. 김치나 술 등을 만들 때는 '담그다'이며 '담가, 담갔다'로 활용하고 '담구다'는 잘못된 말이다. 손위 사람을 두루 이르는 말은 '아래어른'이라는 대응어가 따로 없어 '웃어른'으로 적고, 위아래 대립이 있는 경우에만 '윗-'을 쓴다(예: 윗사람↔아랫사람).

선지별 해설

① X - '댓가'는 틀린 표기이며 '대가'로 적어야 한다. '치뤄야'도 틀린 표기이며 '치러야'로 적어야 한다(기본형 '치르다'). 두 군데가 모두 잘못되어 옳은 문장이 아니다.

② O - '왠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로, '어쩐지', '이유는 모르겠지만'의 뜻을 나타낼 때 쓰는 표기이며 이 문장에서 바르게 쓰였다.

③ X - 살코기를 국물에 넣어 끓이는 것은 '조리다'가 맞으므로 '졸여'는 '조려'로 고쳐야 한다. 또한 김치·젓갈 등을 만드는 것은 '담그다'가 기본형이므로 '담궈'는 '담가'로 고쳐야 한다.

④ X - 위아래 대립 없이 손위 사람을 이르는 말은 '웃어른'이므로 '윗어른'은 틀린 표기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한 문장 안에 잘못된 표기가 두 개씩 들어 있어 어느 한쪽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오답으로 이어지기 쉽다. '대가/치르다'와 '조리다/담그다'는 짝을 이루어 자주 함께 출제되므로 한 쌍으로 묶어 기억해 둔다. ④는 '윗-'과 '웃-'을 구별하지 못해 아래위 대립이 없는 단어에도 '윗-'을 붙이는 실수를 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이시옷이 붙을 자리인지(대가는 붙지 않음), 다음으로 기본형이 '-이다/-으다' 중 어느 쪽인지(치르다, 조리다, 담그다)를 활용형에서 거꾸로 따져 본다. '윗-/웃-'은 반의어가 있는지(윗사람↔아랫사람)로 구분하고, 반의어가 없으면 '웃-'을 쓴다.

암기 포인트

대가(代價)는 사이시옷 없이 대가, 치르다는 치러·치렀다, 조리다는 음식을 조려서 만들 때, 담그다는 담가·담갔다, 웃어른은 반의어가 없어 웃-으로 고정, 왠지는 왜인지의 준말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2. ㉠~㉣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뎨 가는 뎌 각시 본 듯도 ᄒᆞᆫ뎌이고.
텬샹(天上) 빅옥경(白玉京)을 엇디ᄒᆞ야 니별(離別)ᄒᆞ고,
ᄒᆡ 다 뎌 져믄 날의 눌을 보라 가시ᄂᆞᆫ고.

어와 네여이고 내 ᄉᆞ셜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즉 ᄒᆞᆫ가마ᄂᆞᆫ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ᄉᆡ
나도 님을 미더 ㉡군ᄠᅳ디 젼혀 업서
㉢이릐야 교틱야 어ᄌᆞ러이 구돗ᄯᅥᆫ디
반기시ᄂᆞᆫ ᄂᆞᆺ비치 녜와 엇디 다ᄅᆞ신고.
… (중략) …
어와, 허ᄉᆞ(虛事)로다. 이 님이 어듸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ᄇᆞ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ᄲᅮᆫ이로다.
출하리 ᄉᆡ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희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ᄃᆞᆯ이야ᄏᆞ니와 구존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

① ㉠: 사랑받음직

② ㉡: 다른 생각이

③ ㉢: 아양이야

④ ㉣: 반드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철의 「속미인곡」에 쓰인 옛말 네 개의 뜻을 현대어로 정확히 풀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표기가 낯설어 보이지만 문맥을 따라가면서 각 어휘가 앞뒤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뜻을 좁혀 나갈 수 있다. 특히 형태가 비슷한 현대어(예: 반드시)로 잘못 대응시키기 쉬운 어휘가 함정으로 제시된다.

NoteBase

핵심 개념

㉠ 괴얌직: '괴다'는 옛말로 '사랑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에 '~ㅁ직'(그럴 만함)이 붙은 '괴얌직'은 '사랑함직, 사랑받음직'이라는 의미가 되며, 뒤에 이어지는 '흔가마는(하건마는)'과 맞물려 '내 모습이 사랑받음직하기는 하건마는'이라는 문맥을 이룬다.
㉡ 군쁘디: '군-'은 '군말, 군살'처럼 '쓸데없는, 덧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쁟(뜯)'은 '뜻'이다. 따라서 '군쁘디'는 '쓸데없는 뜻이, 다른 생각이'라는 의미로, '나도 임을 믿어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라는 문맥에 맞는다.
㉢ 이러야: 뒤의 '교퇴야(교태야)'와 나란히 쓰여 임에게 부리는 애교나 응석을 가리키는 말로, '아양이야'로 풀이된다.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라는 문맥과 통한다.
㉣ 번드시: 형태가 현대어 '반드시(必ず)'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반드시'가 아니라 빛이 '뚜렷이, 환하게' 나타나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화자가 죽어서 달이 되어 임이 계신 창 안을 뚜렷이 비추겠다는 뜻이므로, '반드시(꼭)'로 풀이하면 문맥과 어긋난다.

선지별 해설

① ㉠ 괴얌직: 사랑받음직 — O. '괴다(사랑하다)'+'~ㅁ직'의 결합으로 '사랑받음직하다'라는 풀이가 문맥과 정확히 맞는다.
② ㉡ 군쁘디: 다른 생각이 — O. 접두사 '군-'(쓸데없는)과 '쁟(뜻)'이 결합해 '다른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뜻이 되며 임을 믿고 딴마음이 없었다는 문맥과 맞는다.
③ ㉢ 이러야: 아양이야 — O. 뒤의 '교퇴야'와 짝을 이루어 임에게 부리던 응석·아양을 가리키므로 문맥과 맞는다.
④ ㉣ 번드시: 반드시 — X. 이 말은 현대어 '반드시(꼭)'가 아니라 '뚜렷이, 환하게'라는 뜻이다. 화자가 낙월이 되어 임이 계신 창을 뚜렷이 비추겠다는 문맥이므로 '반드시'로 풀이하면 옳지 않다. 따라서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 포인트

㉣ 번드시를 현대어 '반드시'와 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뜻으로 판단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고어는 현대어와 형태가 비슷해도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태의 유사성이 아니라 앞뒤 문맥(여기서는 '창 안을 ~ 비최리라'라는 빛의 모양을 나타내는 서술)으로 뜻을 확정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어 뜻풀이 문항은 밑줄 친 말만 따로 떼어 외운 뜻과 맞춰 보지 말고, 반드시 그 말이 들어간 문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뜻이 통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현대어와 형태가 비슷한 고어(번드시-반드시, 어즈러이-어지러이 등)는 형태만 보고 넘겨짚지 말고 문맥에 대입해 뜻이 자연스러운지 반드시 재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괴다=사랑하다, 군-=쓸데없는(군말·군쁘디), 이러=아양, 번드시=뚜렷이·환하게(반드시라는 뜻이 아님)로 각각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3. 다음에서 설명한 '겸양의 격률'을 사용한 대화문은?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 원리는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의 격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우리 선조들은, 상대방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겸양의 격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① 가: 집이 참 좋네요. 구석구석 어쩌면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사모님 살림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② 가: 정윤아, 날씨도 좋은데 우리 놀이공원이나 갈래?
나: 놀이공원? 좋지. 그런데 나는 오늘 뮤지컬 표를 예매해 둬서 어려울 것 같아.

③ 가: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군요. 죄송합니다.

④ 가: 유진아, 너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
나: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공손성의 원리(Leech) 중 '겸양의 격률'이 실제 대화문에 적용된 사례를 찾아내는 문제이다. 겸양의 격률은 상대방의 칭찬이나 좋은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태도를 가리키므로, 선지마다 어떤 격률(요령·관용·찬동·겸양·동의)이 작동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요령의 격률=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한다. 관용의 격률=화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한다. 찬동(칭찬)의 격률=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한다. 겸양의 격률=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낮춤)은 최대화한다. 동의의 격률=상대방과의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가가 나의 집 정돈 상태와 살림 솜씨를 칭찬하자 나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라며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신을 낮추는 말이 없으므로 겸양의 격률이 아니다.
② 가의 제안(놀이공원)에 나가 이미 잡힌 다른 약속(뮤지컬 표 예매)을 이유로 완곡하게 거절하는 대화이다. 칭찬이나 자기 낮춤과 무관하므로 겸양의 격률과 관계없다.
③ 가가 자신의 청력 문제(부담이 되는 사정)를 먼저 밝히며 부탁하고, 나도 자신의 목소리가 작았다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요령의 격률에 가깝다.
④ 가가 유진이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며 못하는 것이 없다고 칭찬하자, 나는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라며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말한다.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최대화했으므로 겸양의 격률을 사용한 대화문이다.

오답 포인트

칭찬을 받았다는 상황만 보고 무조건 겸양의 격률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①처럼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오히려 겸양의 격률에 어긋나는 반응이다. ③은 부탁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려는 태도이므로 요령의 격률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문 문제는 먼저 가의 발화가 칭찬인지, 요청인지, 제안인지를 구분한 뒤, 나의 응답이 그 칭찬을 받아들이는지 자신을 낮추어 사양하는지를 살핀다. 자신에 대한 칭찬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응답이 있으면 겸양의 격률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겸양의 격률=칭찬을 들었을 때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식으로 자신을 낮추는 응답이다. 칭찬을 그대로 수용하며 감사를 표하면 겸양의 격률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은 가치관의 (㉠)을 초래하였다.
◯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을 (㉡)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시다.
◯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하려고 한다.

① ㉠: 혼돈, ㉡: 지양, ㉢: 개발
② ㉠: 혼돈, ㉡: 지향, ㉢: 계발
③ ㉠: 혼동, ㉡: 지양, ㉢: 개발
④ ㉠: 혼동, ㉡: 지향, ㉢: 계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나 의미가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 어휘(혼돈/혼동, 지양/지향, 개발/계발)를 문맥에 맞게 구별해 쓸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단어의 한자와 기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문맥에 맞는 말을 고를 수 있다.

핵심 개념

혼돈(混沌)은 사물의 구별이 없이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하고, 혼동(混同)은 서로 다른 두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혼동은 보통 'A를 B로 혼동하다'처럼 혼동의 대상이 되는 두 항목이 함께 제시된다.
지양(止揚)은 어떤 일이나 상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부정적인 것을 그만두는 것을 뜻하고, 지향(志向)은 어떤 목표로 뜻을 향하게 하는 것, 즉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뜻한다.
개발(開發)은 토지나 자원, 지식, 산업 등을 쓸모 있게 만들어 발전시키는 것을 뜻하고, 계발(啓發)은 사람의 재능이나 지식, 정신 등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 발전시키는 것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혼돈 / 지양 / 개발 → 모두 문맥에 맞다. ㉠은 '가치관의 혼돈'으로 두 대상의 혼동이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혼돈이 맞고, ㉡은 갈등을 그만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문맥이므로 그만둔다는 뜻의 지양이 맞으며, ㉢은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뜻이므로 개발이 맞다. 정답이다.
② 혼돈 / 지향 / 계발 → ㉠은 맞지만, ㉡은 갈등이라는 부정적 대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되어 어색하므로 지양이 아닌 지향을 쓰면 틀리고, ㉢도 관광 자원은 사람의 잠재된 재능이 아니라 자연물이므로 계발이 아닌 개발을 써야 한다. 틀린 표현 '지향, 계발' → 올바른 표현 '지양, 개발'.
③ 혼동 / 지양 / 개발 → ㉡, ㉢은 맞지만, ㉠은 두 대상을 서로 뒤섞어 생각한다는 혼동의 의미가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돈의 의미이므로 혼동을 쓰면 틀린다. 틀린 표현 '혼동' → 올바른 표현 '혼돈'.
④ 혼동 / 지향 / 계발 → ㉠, ㉡, ㉢ 모두 문맥에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혼동, 지향, 계발' → 올바른 표현 '혼돈, 지양, 개발'.

오답 포인트

혼돈과 혼동을 구별할 때는 문장에 혼동의 대상이 되는 두 항목이 짝지어 제시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 문제의 ㉠ 문장에는 그런 두 항목이 없으므로 혼돈이 맞다. 지양과 지향은 뒤에 오는 대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로 구별하는데, 갈등처럼 부정적인 대상은 지양의 목적어로 쓰인다. 개발과 계발은 대상이 사람의 능력인지 물적 자원인지로 구별하는데, 관광 자원은 물적 자원이므로 개발이 맞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에 들어갈 한자어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먼저 각 빈칸 앞뒤의 목적어나 주어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가치관의 ( )'처럼 대상이 하나뿐이면 혼돈, '~을/를 ~로 혼동하다'처럼 대상이 둘이면 혼동을 쓴다. 목적어가 갈등·문제 등 부정적 의미이면 지양, 목표·미래 등 긍정적 의미이면 지향을 쓴다. 목적어가 자원·시설·산업이면 개발, 재능·정신·지혜이면 계발을 쓴다.

암기 포인트

혼돈=갈피 못 잡음(대상 하나), 혼동=뒤섞어 잘못 앎(대상 둘). 지양=그만둠(부정적인 것), 지향=향해 나아감(긍정적인 것). 개발=자원·산업을 발전시킴, 계발=사람의 재능을 일깨움.

NoteBase

문 5.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글문학' 또는 '한글소설'이란 뭘까? 손쉽게, '한글을 표기 수단으로 삼은 문학', '한글로 쓴 소설'이라 말할 수 있을 테다. 한국 고전소설을 '한문소설/한글소설'로 나누는 관점에도, 사용하는 '문자'에 대한 의식이 개입해 있을 게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한 분류일까? 적어도, 자연스러운 분류일까? 그 관행 바깥에서 잠시만 생각해 보면, '한문소설'과 '한글소설'은 맞세울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이 또렷해진다. 그것은 한문과 한글이 맞세울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문과 한글은 왜 맞세울 수 없는가? 한문은 고전중국어라는 자연언어나 그 자연언어로 짜인 텍스트를 가리키는 데 비해, 한글은 1446년에 반포된 표음문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 둘은 층위가 크게 다르다. 한글과 맞세울 수 있는 개념은 한문이 아니라 한자다.

그러니까 한문소설은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한글소설'은 아예 성립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있더라도 거의 쓸모없는 개념이다. '한글소설'이 성립될 수 없거나 거의 쓸모없는 개념인 것은, '로마문자소설'이나 '키릴문자소설'이 성립될 수 없거나 거의 쓸모없는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한글로 창작한다'거나 '한글로 번역한다'는 표현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어떤 문자로 '표기'하거나 '전사'할 수는 있지만, '창작'하거나 '번역'할 수는 없다. 적어도 표준적 언어 사용에 따르면 그렇다. 텍스트를 짜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의 표현은 '한국어로 창작한다'거나 '한국어로 번역한다'로 고쳐져야 할 테다. 『홍길동전』은 한글로 창작된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로 창작된 소설이고, 본디 한문으로 창작된 『설공찬전』은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고전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러니까 효시든 아니든 『홍길동전』은 _____

①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고, 따라서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

② '한국어소설'이 아니라 '한글소설'이고, 따라서 '한국어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문학'에 속한다.

③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되 '한국어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문학'에 속한다.

④ '한국어소설'이 아니라 '한글소설'이되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글은 '한글문학·한글소설'이라는 용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편다. 글쓴이의 논지를 끝까지 따라가 빈칸에 결론을 정확히 대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글의 핵심 대응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글쓴이는 두 층위를 구분한다. 첫째, 한글은 '문자'이고 한문은 '언어(고전중국어)'이므로 둘은 맞세울 수 없는 개념이며, 한글과 대응하는 개념은 한자라고 말한다. 둘째, 텍스트(소설)를 짜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언어이므로, '한글소설'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고 대신 '한국어소설'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한다. 이 두 층위 구분에 따라 글쓴이는 '한글로 창작한다'를 '한국어로 창작한다'로, '한글소설'을 '한국어소설'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논리는 상위 범주인 '한글문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한글문학'도 '한국어문학'으로 고쳐 써야 한다. 즉 글쓴이의 결론은 소설 차원과 문학 차원에서 동일한 방향(한글→한국어)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고, 따라서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 O. 글쓴이가 앞부분에서 편 논리(문자가 아니라 언어가 텍스트를 짠다)를 그대로 '홍길동전'에 적용한 결론이다. 소설 차원('한국어소설')과 문학 차원('한국어문학') 모두에서 한글 기준을 한국어 기준으로 일관되게 바꾸었으므로 글의 논지와 정확히 일치한다.
② '한국어소설'이 아니라 '한글소설'이고, 따라서 '한국어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문학'에 속한다: X. 글 전체의 주장과 정반대이다. 글쓴이는 '한글소설'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선지는 오히려 '한글소설'이 맞고 '한국어소설'이 틀렸다고 하여 논지를 거꾸로 뒤집었다.
③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되 '한국어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문학'에 속한다: X. 소설 차원에서는 '한국어소설'로 옳게 고쳤으나, 문학 차원에서는 다시 '한글문학'으로 되돌려 일관성이 깨진다. 같은 논리라면 문학 차원도 '한국어문학'이 되어야 하므로 앞뒤가 모순된다.
④ '한국어소설'이 아니라 '한글소설'이되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 X. ③과 반대 방향으로 앞뒤가 어긋난다. 소설 차원에서는 '한글소설'을 그대로 두어 논지를 부정해 놓고, 문학 차원에서는 '한국어문학'으로 바꾸어 오히려 문학 차원에만 논지를 적용하는 모순된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소설 차원과 문학 차원 중 한쪽에서만 논지를 적용하고 다른 쪽에서는 뒤집어 놓는 선지(③, ④)이다. 글쓴이의 결론은 '문자 기준(한글)에서 언어 기준(한국어)으로'라는 하나의 방향을 소설과 문학 두 차원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므로, 두 차원의 표현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그 선지는 틀린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의 결론을 요구하는 빈칸 채우기 문제는 글 전체에서 반복되는 대응 구조(이 글에서는 '문자 대 언어', '한글 대 한국어')를 먼저 찾아낸 뒤, 그 대응이 하위 개념(소설)과 상위 개념(문학) 모두에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며 선지를 소거한다.

암기 포인트

이 글의 논리 구도는 한글=문자, 한국어=언어이고 텍스트를 짜는 것은 언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글소설'은 '한국어소설'로, '한글문학'은 '한국어문학'으로 같은 방향으로 고쳐 써야 한다는 결론으로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① 계속되는 폭우로 마을 입구의 다리가 崩塊되었다.

② 이 일은 迅速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③ 나의 실수에 대해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詐過했다.

④ 이번 고적 踏事는 영남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일상 어휘를 한자로 표기할 때 자주 혼동되는 유사 한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소리는 같거나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한자를 정확한 한자로 바꿔 쓸 수 있어야 한다.

핵심 개념

붕괴(崩壞)는 '무너질 붕(崩)'과 '무너질 괴(壞)'가 결합한 말로, '덩어리 괴(塊)'와는 뜻이 다르다. 신속(迅速)은 '빠를 신(迅)'과 '빠를 속(速)'이 결합한 말로 표기가 정확하다. 사과(謝過)는 '사죄할 사(謝)'와 '지날 과(過)'가 결합한 말로, '속일 사(詐)'와는 뜻이 전혀 다르다. 답사(踏査)는 '밟을 답(踏)'과 '조사할 사(査)'가 결합한 말로, '일 사(事)'와는 뜻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崩塊(붕괴) → X. '무너지다'라는 뜻의 붕괴는 崩壞로 써야 한다. 塊(덩어리 괴)를 쓰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
② 迅速(신속) → O. '빠르다'라는 뜻의 신속을 정확한 한자로 표기했다.
③ 詐過(사과) → X. '잘못을 빌다'라는 뜻의 사과는 謝過로 써야 한다. 詐(속일 사)를 쓰면 '속이고 지나가다'라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
④ 踏事(답사) → X. '현장을 돌아보며 조사하다'라는 뜻의 답사는 踏査로 써야 한다. 事(일 사)를 쓰면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사라진다.

오답 포인트

①③④는 모두 소리가 비슷한 다른 한자로 대체되어 뜻이 어긋난 경우이다. 塊(덩어리)와 壞(무너지다), 詐(속이다)와 謝(사죄하다), 事(일)와 査(조사하다)처럼 음이 같거나 비슷해도 뜻이 다른 한자를 짝지어 함께 기억해 두어야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한자어를 보면 먼저 우리말 뜻을 떠올린 뒤, 제시된 한자가 그 뜻에 맞는 글자인지 하나씩 대조한다. 특히 괴(塊/壞), 사(詐/謝), 사(事/査)처럼 음이 같은 한자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뜻이 통하는 한자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붕괴=崩壞(무너질 붕, 무너질 괴), 신속=迅速(빠를 신, 빠를 속), 사과=謝過(사죄할 사, 지날 과),
답사=踏査(밟을 답, 조사할 사)로 짝지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7. ㉠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앞에서 단기 기억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단기 기억은 그 기억 용량에서나 기억 시간 면에서 모두 그 한계가 뚜렷하다. 장기 기억은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가정하자. 국민의례 순서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다. 이때 애국가 1절의 가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애국가 1절의 가사는 이미 (㉠)하게 우리의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으며 언제라도 오류 없이 그 가사를 회상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애국가 2, 3, 4절로 갈수록 우리의 기억은 부정확해진다.
이처럼 어떤 기억은 평생 동안 유지되는 반면, 어떤 기억은 얼마간 지속되다가 (㉡)되거나 부정확해진다.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은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을 시험 날까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자기가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시험 전에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을 시험 시간에 회상해 내지 못해 안타까웠던 경험, 분명히 인사를 나눈 바 있는 거래처 직원의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해서 (㉢)스러웠던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① ㉠ 건실(健實), ㉡ 소거(消去), ㉢ 곤욕(困辱)
② ㉠ 견고(堅固), ㉡ 소실(消失), ㉢ 혼곤(昏困)
③ ㉠ 확고(確固), ㉡ 소멸(消滅), ㉢ 곤혹(困惑)
④ ㉠ 확실(確實), ㉡ 소진(消盡), ㉢ 혼란(混亂)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의 흐름에 맞는 한자어 어휘를 고르는 문제이다. ㉠~㉢ 각 자리에 들어갈 단어는 모두 뜻이 비슷해 보이는 한자어 중에서 앞뒤 문맥이 요구하는 의미와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골라야 하며, 한자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관건이다.

핵심 개념

㉠ 자리: 애국가 1절 가사처럼 오래도록 오류 없이 회상되는 기억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와야 한다.
확고(確固)는 '굳고 흔들림이 없음'을 뜻하여 장기 기억 속에 흔들림 없이 저장된 상태를 정확히 나타낸다.
㉡ 자리: '얼마간 지속되다가 ( )되거나 부정확해진다'라는 구절에서, 뒤의 '부정확해진다'와 대등하게 이어지는 또 다른 결과이므로 기억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 와야 한다. 소멸(消滅)은 '사라져 없어짐'을 뜻하여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를 나타낸다.
㉢ 자리: 분명히 인사를 나눈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한다.
곤혹(困惑)은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을 뜻하며, '곤혹스럽다'는 이런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건실(健實), 소거(消去), 곤욕(困辱) — X. 건실은 '몸이나 마음, 생각 등이 건강하고 착실함'을 뜻하여 기억이 저장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어울리지 않는다. 소거는 '없애 버림'이라는 능동적 제거의 의미가 강해 기억이 저절로 희미해지는 상황과는 어긋난다. 곤욕은 '심한 모욕이나 수치'를 뜻하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 어울리는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② 견고(堅固), 소실(消失), 혼곤(昏困) — X. 견고는 '굳고 단단함'을 뜻하여 물체의 강도를 표현할 때 주로 쓰이며 기억의 확고한 저장 상태를 표현하기엔 다소 어색하다. 소실은 '사라져 없어짐'이라는 뜻은 통하나, 혼곤이 '정신이 흐릿하고 고달픔'을 뜻하여 이름을 기억 못 해 느끼는 감정과는 맞지 않는다.
③ 확고(確固), 소멸(消滅), 곤혹(困惑) — O. 확고는 장기 기억에 흔들림 없이 저장된 상태를, 소멸은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를, 곤혹은 이름을 기억 못 해 난처했던 감정을 모두 정확히 나타낸다.
④ 확실(確實), 소진(消盡), 혼란(混亂) — X. 확실은 '틀림없이 그러함'이라는 판단의 확실성을 뜻하여 기억이 저장된 상태 자체를 나타내기엔 어울리지 않는다. 소진은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짐'이라는 점진적 소모의 뜻이어서 문맥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혼란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임'을 뜻하여 이름을 기억 못 한 상황의 감정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오답들은 모두 비슷한 한자 '소(消)'가 들어간 단어들(소거, 소실, 소멸, 소진)을 헷갈리게 배치해 두어, 정확한 한자 뜻의 차이를 모르면 틀리기 쉽다. 소거는 능동적 제거, 소실·소멸은 사라져 없어짐, 소진은 점진적 소모라는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또한 '곤혹스럽다'라는 표현이 실생활에서 익숙하지 않으면 곤욕·혼곤·혼란과 헷갈릴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채우기 어휘 문제는 앞뒤 문맥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의미를 먼저 파악한 뒤, 각 선지 한자어의 한자 뜻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특히 이 문제처럼 '소(消)'가 공통으로 들어간 유사 한자어들이 여러 선지에 반복될 때는, 각 단어의 한자 뜻 차이(제거/소실/사라짐/소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확고(確固)=굳고 흔들림 없음, 소멸(消滅)=사라져 없어짐, 곤혹(困惑)=곤란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이 세 단어의 조합을 함께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에 나타난 북곽 선생의 언행에 부합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와,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았다.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여쭈었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웁니다. 남의 아들된 자들은 그 효성을 법으로 사모하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신룡과 짝이 되어,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처럼 하토의 천한 신하는 감히 그 바람 아래 서옵니다." 범이 이 말을 듣고 꾸짖었다. "앞으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지난번에 내가 들으니 '유(儒)'는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에 나쁜 이름을 모두 모아서 망령되게도 내게 덧붙이더니 이제 낯간지러운 말을 하는구나. 그 말을 누가 곧이듣겠느냐?"
— 박지원, 『호질』 —

① 牽強附會
② 巧言令色
③ 名論卓說
④ 橘化爲枳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은 박지원의 『호질』 중 북곽 선생이 범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아첨하는 장면이다. 북곽 선생은 범을 극진히 칭송하며 알랑거리는 말을 늘어놓지만, 정작 범은 그 말이 겉치레뿐인 아첨임을 꾸짖으며 유(儒)를 유(諛, 아첨)와 같다고 지적한다. 이 문항은 북곽 선생의 언행, 즉 남에게 잘 보이려고 듣기 좋은 말과 꾸민 태도로 아첨하는 모습에 부합하는 한자성어를 고르는 개념 매칭형 문제이다.

핵심 개념

牽強附會(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자신의 조건에 맞도록 함.
巧言令色(교언영색)=상대의 환심을 사려고 교묘하게 꾸민 말과 얼굴빛. 名論卓說(명론탁설)=이름난 논설과 탁월한 의견. 橘化爲枳(귤화위지)=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으로, 환경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 달라짐을 이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牽強附會(견강부회) — X. 북곽 선생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범에게 잘 보이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꾸며서 늘어놓는 것이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② 巧言令色(교언영색) — O. 북곽 선생은 범의 덕을 과장되게 찬양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세 번 절하는 등 상대의 환심을 사려고 말과 표정을 꾸미는데, 이는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으로 아첨하는 교언영색에 정확히 부합한다. 실제로 범도 이러한 태도를 두고 유(儒)가 곧 아첨(諛)이라며 질타하므로 이 성어가 가장 적절하다.
③ 名論卓說(명론탁설) — X. 이름난 논설이나 탁월한 의견을 뜻하는데, 북곽 선생의 말은 범이 직접 거짓 아첨이라고 지적할 만큼 실속 없는 겉치레 말이므로 명론탁설과는 정반대에 해당한다.
④ 橘化爲枳(귤화위지) — X. 환경에 따라 사물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뜻으로, 북곽 선생이 환경 변화로 인해 다른 성질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은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각각 억지 논리·훌륭한 의견이라는 뜻으로, 북곽 선생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헷갈릴 수 있으나, 제시문의 핵심은 말의 논리적 타당성이 아니라 상대의 환심을 사려는 아첨의 태도에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④는 환경에 따른 성질 변화를 다루는 성어로, 인물의 언행과는 관련이 없는 성어임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잘 보이려는 아첨·아부의 태도로 그려지면 巧言令色을 먼저 떠올린다. 반면 논리적 억지 주장이면 牽強附會, 훌륭한 의견·논설이면 名論卓說, 환경에 따른 변질이면 橘化爲枳로 구분하여 성어의 핵심 의미와 인물의 언행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巧言令色(교언영색): 교묘할 교, 말씀 언, 명령할 령(아름다울 령), 낯 색 — 남의 환심을 사려고 꾸민 말과 표정을 뜻한다. 『호질』에서 범이 유(儒)를 유(諛, 아첨할 유)와 같다고 꾸짖는 대목과 함께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9. 밑줄 친 단어가 다음에서 설명한 동음어로 묶인 것은?

동음어는 의미상 서로 관련이 없거나 역사적으로 기원이 다른데 소리만 우연히 같게 된 말들의 집합이며, 국어사전에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 등재된다.

① 지수는 빨래를 할 때 합성세제를 쓰지 않는다.
이 일은 인부를 쓰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

② 새로 구입한 의자는 다리가 튼튼하다.
박물관에 가려면 한강 다리를 건너야 한다.

③ 이 방은 너무 밝아서 잠자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다.

④ 그 영화는 뒤로 갈수록 재미가 없었다.
너의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내가 뒤를 봐주겠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동음어(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동음어는 의미상 서로 관련이 없거나 기원이 달라 소리만 우연히 같아진 말로, 국어사전에 서로 다른 표제어(별개 항목)로 오른다. 반면 다의어는 하나의 표제어 아래 중심 의미와 그로부터 파생·확장된 주변 의미가 함께 실린다. 각 선지의 두 문장에 쓰인 밑줄 친 단어가 서로 다른 표제어(동음어)인지, 같은 표제어 안의 여러 뜻(다의어)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다의어: 하나의 단어가 기본 의미에서 뜻이 확장되어 여러 의미로 쓰이되 의미적 연관성이 남아 있는 경우이다(사전에 한 표제어, 여러 번호의 뜻풀이로 등재). 동음어: 소리만 같을 뿐 의미상 관련이 없거나 어원이 달라 사전에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되는 경우이다(예: 표제어 옆에 붙는 일련번호가 다른 것).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두 문장의 '쓰지'는 모두 '무엇을 필요한 곳에 이용하다·사람을 부리다'라는 뜻으로 연결되는 '쓰다'의 활용형이다. 세제를 쓰는 것과 인부를 쓰는 것은 모두 '사용하다'라는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파생된 쓰임이므로 같은 표제어 안의 다의어 관계이며 동음어가 아니다.
② '의자는 다리가 튼튼하다'의 '다리'는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신체 부위)라는 의미가 사물(가구)의 지지대에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쓰인 것으로, '다리(신체 부위)' 표제어 안의 다의적 용법에 해당한다. 반면 '한강 다리를 건너야 한다'의 '다리'는 물을 건너도록 놓은 구조물을 가리키는 말로, 신체 부위 '다리'와는 의미적 연관이나 어원이 달라 국어사전에 별개의 표제어로 오르는 동음어이다. 따라서 이 선지의 두 '다리'는 서로 다른 단어(동음어)로 묶인 예이며, 제시된 설명에 부합한다.
③ '방이 밝다'의 '밝다'와 '계산에 밝다'의 '밝다'는 모두 '빛이 환하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사리에 분명하고 훤히 안다'는 뜻으로 확장된 것으로, 같은 표제어 안의 다의어 관계이다.
④ '영화가 뒤로 갈수록'의 '뒤'(시간·순서상 나중)와 '내가 뒤를 봐주겠다'의 '뒤'(뒤에서 도와줌, 뒷받침)는 모두 공간적으로 '앞의 반대쪽, 나중에 오는 쪽'이라는 원래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된 뜻으로, 같은 표제어 안의 다의어 관계이다.

오답 포인트

①③④는 모두 두 쓰임 사이에 의미적 연관성이 뚜렷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쓰다(사용하다)', '밝다(환하다→사리에 밝다)', '뒤(공간의 뒤→순서의 뒤→뒷받침)'는 전부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뜻이 넓어진 다의어이지 서로 무관한 단어가 우연히 같은 소리를 갖게 된 동음어가 아니다. 동음어인지 다의어인지는 '두 뜻 사이에 의미 연결고리가 있는가'로 판단해야 하며, 연결고리가 있으면 다의어, 없으면(또는 어원이 다르면) 동음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두 단어의 뜻을 각각 떠올린 뒤 '한쪽 의미에서 다른 쪽 의미가 비유·확장으로 자연스럽게 설명되는가'를 먼저 따진다. 설명이 된다면 다의어, 전혀 별개의 대상을 가리켜 의미 연결이 억지스럽다면 동음어로 판단한다. '다리(신체)-다리(가구 지지대)-다리(교량)'처럼 세 갈래로 뻗는 단어는 신체 의미와 가구 지지대 의미는 한 표제어(다의어), 교량 의미만 별개 표제어(동음어)로 갈린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암기 포인트

다의어=한 뿌리에서 뻗은 여러 가지(의미 연관 O, 표제어 1개), 동음어=뿌리가 다른데 소리만 겹친 별개의 나무(의미 연관 X, 표제어 여러 개). '다리(신체/가구)'는 다의어, '다리(교량)'는 동음어라는 예를 기준점으로 삼아 둔다.

NoteBase

문 10. <보기>가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는?

<보기>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 진보는 주체와 주체 간의 더 큰 이해와 소통 가능성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가 곧 선(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본래 기술이란 사회의 변화나 인식론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망정 가치 판단을 내포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 사회의 기술들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의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 소통의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 마련에 대해서는 무력하다.

①

우리나라도 어느덧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IT 기술이나 인터넷 및 네트워크 기술이 큰 폭으로 발전하였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할 기술적 진보는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서로 만나고 다양한 이슈에 동참할 수 있는 담론 공간의 마련이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사회나 정치 이슈를 주제로 활발하게 타자(他者)와 접하며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②

이에 따라 우리는 소통의 가능성을 넘어 그것을 현명하게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고민이 불필요하게 생각되거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악성 댓글과 루머, 인신공격 등의 병리 현상은 철학이나 가치 부재의 기술 진보가 주는 위험성을 잘 드러내 준다. 우리는 기술 진보에 따라 확보된 수많은 소통 통로 속에서 그것을 주체와 주체 간의 참다운 만남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③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각되고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는 어떠한 것들일까? IT 또는 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성공시켰다는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어느 한 기업가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장소에서 자사의 혁신적 제품은 인문학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즉 첨단의 정보화 기술과 인문학의 관련성을 역설한 것이다.

④

① ① 위치

② ② 위치

③ ③ 위치

④ ④ 위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여 <보기>가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는 문장 삽입 문제이다. <보기>의 첫 문장이 앞 단락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는지, 마지막 문장이 뒤 단락의 첫머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지시어와 접속어를 단서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본문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보기>가 들어갈 자리(①~④)가 표시되어 있다. 첫째 단락(① 다음)은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며 IT·인터넷 기술이 발전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이 만나 토론할 수 있는 담론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내용이다. 둘째 단락(② 다음)은 '이에 따라' 소통의 가능성을 넘어 그것을 현명하게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악성 댓글·루머 등 병리 현상이 가치 부재의 기술 진보가 주는 위험성을 드러낸다는 내용이다. 셋째 단락(③ 다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각되어야 할 분야로 첨단 기술과 인문학의 관련성을 든다. <보기>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 진보는 주체와 주체 간의 더 큰 이해와 소통 가능성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로 앞 단락을 요약한 뒤, '그러나 기술의 진보가 곧 선(善)이 되지는 않으며, 소통의 통로는 마련했지만 그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 마련에는 무력하다'라고 전환하는 단락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① 자리는 첫째 단락 앞이다. <보기>의 '이러한 기술 진보'가 가리킬 앞 내용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지시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② O — <보기>의 첫 문장 '이러한 기술 진보 … 소통 가능성을 마련'은 첫째 단락(담론 공간 마련)을 그대로 요약하고, 마지막 문장 '소통의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 마련에는 무력하다'는 둘째 단락 첫머리 '이에 따라 우리는 소통의 가능성을 넘어 그것을 현명하게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때가 되었다'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따라서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 사이인 ②가 가장 적절하다.
③ X — ③ 자리는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 사이이다. 둘째 단락이 이미 '실천하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로 마무리되고 셋째 단락이 '그렇다면 … 해결하기 위해 부각되어야 하는 분야'로 이어져, <보기>의 요약·전환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④ X — ④ 자리는 셋째 단락 뒤, 즉 글의 맨 끝이다. <보기>는 앞 내용을 요약하고 문제를 제기·전환하는 단락이므로 글을 마무리하는 위치에 오면 흐름이 어긋난다.

오답 포인트

<보기>의 첫 문장에 있는 지시어 '이러한 기술 진보'와 마지막 문장의 화제(소통의 올바른 방법·방향)를 함께 보지 않으면 위치를 잘못 고르기 쉽다. 특히 둘째 단락 첫머리의 접속 표현 '이에 따라'가 <보기>의 결론(방법 마련에 무력함)을 받는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고르는 실수를 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문단 삽입 문제는 <보기> 첫머리의 지시어·접속어가 무엇을 받는지, 그리고 <보기>의 끝 문장이 어느 단락의 첫 문장과 이어지는지를 양쪽에서 확인한다. 앞뒤 연결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자리가 정답이다.

암기 포인트

삽입 위치 문제의 핵심 단서는 지시어와 접속어이다. <보기>의 '이러한'은 앞 단락을, 뒤 단락의 '이에 따라'는 <보기>를 받으므로 <보기>는 두 단락 사이인 ②에 들어간다.

NoteBase

문 11.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은 비밀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안절부절못했다.

② 학부모 간담회에는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③ 서류를 검토한 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④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나에게는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한 심미안이 부족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의존 명사·어미·접미사가 얽힌 띄어쓰기 규정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형태가 같아 보이는 말이 문맥에 따라 어미로 쓰여 붙여 써야 하는 경우와, 의존 명사로 쓰여 띄어 써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ㄴ바'가 연결 어미로 쓰이면 앞말에 붙여 쓴다. 이때는 뒤에 오는 내용의 이유·근거·전제가 됨을 나타내며 '~하였더니', '~한 결과'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반면 '바'가 '앞에서 말한 내용 자체나 일 자체' 등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이면 관형어 뒤에서 띄어 쓴다(예: 그의 뜻한 바를 알겠다). 한편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관형어 뒤에서 띄어 쓰고, 접미사 '-여'는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여 쓰되 그 뒤의 단위성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만큼'과 '만하다(만한)'는 관형어 뒤에서 의존 명사·보조 형용사로 쓰이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을 만하다'는 붙여 씀도 허용되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형은 비밀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안절부절못했다. → O. '드러날 것을'에서 '것'은 관형어 '드러날' 뒤에 오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 것이 옳다. '안절부절못하다'는 부사 '안절부절'에 '못하다'가 결합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② 학부모 간담회에는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O. '20여'는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는 접미사이므로 '20' 뒤에 붙여 쓰고, '명'은 사람을 세는 단위성 의존 명사이므로 '20여' 뒤에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③ 서류를 검토한 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X. 여기서 '바'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전제·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ㄴ바'로 쓰였으므로 '검토한바'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이 문장은 '서류를 검토하였더니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는 뜻으로, 의존 명사 '바'(앞서 말한 일이나 내용 자체)의 쓰임과는 다르다. 따라서 '검토한 바'로 띄어 쓴 것은 옳지 않다.

④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나에게는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한 심미안이 부족하다. → O. '아는 만큼'에서 '만큼'은 관형어 '아는' 뒤에 쓰인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 것이 맞다. '평가할 만한'은 '평가할 만하다'라는 보조 용언 구성으로, 관형어 뒤에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이 문장도 그 원칙대로 띄어 썼으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에서 틀리기 쉬운 지점은 '바'라는 형태가 항상 의존 명사로만 쓰인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ㄴ바'가 이유나 전제를 나타내는 어미로 쓰일 때는 반드시 붙여 써야 하는데, 관형어 뒤에 오는 형태만 보고 무조건 띄어 쓰는 의존 명사로 판단하면 안 된다. 또한 '20여 명'처럼 접미사와 의존 명사가 연속으로 나오는 구성에서 어디까지 붙이고 어디서 띄워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바'가 나오면 먼저 그 문장이 '~하였더니, ~한 결과'처럼 뒤 내용의 근거·전제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그렇다면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반대로 '~한 것, ~한 일 자체'를 가리키며 그 자체가 문장의 목적어나 주어 역할을 하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이 구분 기준을 다른 유사 어미(-ㄴ데, -ㄹ지라도 등)에도 적용해 어미인지 의존 명사인지를 먼저 가려낸 뒤 띄어쓰기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ㄴ바'가 이유·전제를 나타내면 붙여 쓴다(검토한바 → 검토하였더니). '바'가 '한 일 자체'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면 띄어 쓴다(뜻한 바를 알겠다). '것'은 항상 의존 명사이므로 관형어 뒤에서 띄어 쓴다. '수사+여'는 붙이고 그 뒤 단위 명사는 띄운다(20여 명). '만큼', '만하다(만한)'는 관형어 뒤에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NoteBase

문 12.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은 것은?

① 힘들다, 작은집, 돌아오다

② 검붉다, 굳세다, 밤낮

③ 부슬비, 늦더위, 굶주리다

④ 빛나다, 보살피다, 오르내리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합성어를 이루는 두 어근의 결합 방식이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규칙(통사 규칙)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통사적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 문장에서 단어들이 결합하는 방식과 같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그 결합 방식이 일반 문장 구성 규칙에서 벗어난다.

핵심 개념

통사적 합성어는 다음과 같은 정상적인 문장 성분 결합 순서를 따른다. 명사+명사(예: 밤낮), 관형사형 어미+명사(예: 작은집), 용언 어간+연결 어미(대개 '아/어', '고')+용언(예: 돌아오다, 뛰어가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이러한 정상적인 결합 고리(조사, 어미)가 빠진 경우이다.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용언 어간이 어미 없이 바로 다른 용언 어간과 결합(예: 검붉다=검다+붉다, 굳세다=굳다+세다, 굶주리다=굶다+주리다, 오르내리다=오르다+내리다), 용언 어간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바로 명사와 결합(예: 늦더위=늦다의 어간 늦-+더위, 정상이라면 '늦은 더위'),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비정상적 결합(예: 부슬비=부사 '부슬'+명사 '비', 부사는 원래 용언을 꾸며야 하는데 명사를 바로 꾸밈), 주어와 서술어 관계인데 조사 없이 결합(예: 힘들다=힘+들다, 정상이라면 '힘이 들다', 빛나다=빛+나다, 정상이라면 '빛이 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힘들다, 작은집, 돌아오다: 힘들다는 '힘이 들다'에서 조사 '이'가 생략된 형태로 비통사적 합성어이지만, 작은집은 관형사형 어미 '-은'+명사의 정상 결합이라 통사적 합성어이고, 돌아오다도 어간+연결 어미 '아'+용언의 정상 결합이라 통사적 합성어이다. 세 단어의 결합 방식이 통일되지 않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② 검붉다, 굳세다, 밤낮: 검붉다와 굳세다는 용언 어간끼리 어미 없이 바로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지만, 밤낮은 명사+명사의 정상 결합이라 통사적 합성어이다. 세 단어가 모두 비통사적이지 않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③ 부슬비, 늦더위, 굶주리다: 부슬비는 부사가 명사를 바로 수식하는 비정상 결합, 늦더위는 용언 어간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명사와 바로 결합한 비정상 결합, 굶주리다는 용언 어간끼리 어미 없이 바로 결합한 비정상 결합이다. 세 단어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이 선지가 답이다.
④ 빛나다, 보살피다, 오르내리다: 빛나다는 '빛이 나다'에서 조사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이고 오르내리다도 어간끼리 어미 없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지만, 보살피다는 오늘날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두 어근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는 합성어 판별 대상으로 다루기 어려운 예이다. 세 단어가 통일된 비통사적 결합의 예로 보기 어려우므로 답이 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①, ②, ④에는 통사적 합성어(작은집, 돌아오다, 밤낮)나 판별이 애매한 단어(보살피다)가 하나씩 섞여 있어서 '~로만 묶은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세 단어 중 하나라도 정상적인 조사·어미 결합을 보이면 그 선지 전체가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어를 어근 두 개로 쪼갠 뒤 그 사이에 조사나 어미를 넣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지 확인한다. 자연스럽게 채워지면(예: 밤과 낮, 작은 집, 돌아서 오다) 통사적 합성어이고, 어색하거나 빠진 조사·어미를 채워야만 말이 되면(예: 힘이 들다, 검고 붉다, 늦은 더위, 부슬거리는 비)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선지 안의 세 단어가 모두 같은 결론(모두 비통사적)이어야 정답 선지가 된다.

암기 포인트

비통사적 합성어의 3대 패턴을 기억해 둔다. 1) 용언 어간+용언(어미 생략: 검붉다, 굶주리다, 오르내리다), 2) 용언 어간+명사(관형사형 어미 생략: 늦더위), 3) 부사+명사(부사가 명사를 수식: 부슬비, 산들바람 등). 반대로 명사+명사, 관형사형+명사, 어간+연결 어미+용언은 통사적 합성어의 대표 패턴이다.

NoteBase

문 13. 높임법 사용이 옳은 것은?

①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② 큰아버지, 오늘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③ 김 과장님, 부장님께서 빨리 오시라는데 오후에 시간 계십니까?

④ 철수야,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부모님께 여쭈어 보고 결정할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높임법이 실제 대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호응하는지를 묻는다. 주체 높임(용언에 '-시-'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 대상을 높일 때 쓰는 특수 어휘(뵙다, 여쭈다, 드리다, 모시다)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딸린 대상(시간, 집 등)을 높일 때 쓰는 표현을 구별해서 알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핵심 개념

객체 높임=문장의 목적어·부사어가 가리키는, 화자보다 높은 대상을 향한 행위일 때 일반 어휘 대신 특수 어휘를 쓴다: 보다→뵙다, 묻다→여쭈다(여쭙다), 주다→드리다, 데리고 가다→모시다. 간접 높임(관련 어휘)=높여야 할 대상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물이나 신체·상태를 나타낼 때도 높임 어휘로 바꾸어야 한다: 집→댁, 있다(사람의 상태·소유)→있으시다. 이때 '계시다'는 사람 그 자체가 주어일 때만 쓰는 말이므로 시간·걱정처럼 사람이 아닌 대상에는 쓸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X. 목적어 '교수님'을 향한 행위이므로 '보다'를 그대로 쓰면 높여야 할 대상을 낮추는 셈이 된다. '직접 보고'를 '직접 뵙고'로 고쳐야 객체 높임이 성립한다.

② 큰아버지, 오늘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 X. '드셨는데'(드시다)와 '모셔다'(모시다)까지는 바르게 썼지만, 큰아버지에게 딸린 대상인 '집'을 그대로 써서 호응이 깨진다. 웃어른의 집을 가리킬 때는 높임말 '댁'을 써야 하므로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③ 김 과장님, 부장님께서 빨리 오시라는데 오후에 시간 계십니까? → X. 높여야 할 대상은 '과장님' 자신이 아니라 그가 가진 '시간'이다. 사람 자체를 높이는 '계시다'를 시간에 붙이면 잘못이며, 소유·상태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있으시다'를 붙여 '시간이 있으십니까'로 써야 한다.

④ 철수야,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부모님께 여쭈어 보고 결정할게. → O. 화자보다 높은 '부모님'에게 묻는 행위이므로 '묻다'의 높임 어휘인 '여쭈다(여쭤보다)'를 쓴 것이 객체 높임에 맞고, 청자인 '철수'는 화자와 편한 사이이므로 '-ㄹ게'라는 예사말 종결 어미를 쓴 것도 자연스럽다.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상황에 맞게 모두 호응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모두 겉으로는 높임 어휘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①은 목적어(교수님) 자체를 낮은 어휘 '보다'로 처리했고 ②는 목적어에 딸린 명사('집')를 높이지 못해 오답이 된다. ③은 사람과 사람의 소유·상태를 혼동해 '계시다'와 '있으시다'를 잘못 바꿔 쓴 대표적인 간접 높임 오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높임법 문제는 밑줄이나 선지 전체를 다 맞다고 넘기지 말고, 문장에 등장하는 사람 관련 명사(집, 시간, 말씀 등)까지 하나하나 짚어 '이 대상이 사람 자신인가, 사람에게 딸린 것인가'를 구분해서 확인한다. 사람 자신이면 '계시다·드시다' 같은 직접 높임, 딸린 것이면 '있으시다·댁' 같은 간접 높임 어휘를 쓴다.

암기 포인트

보다→뵙다, 묻다→여쭈다, 주다→드리다, 데려가다→모시다(객체 높임 4대 어휘) / 집→댁,
있다(소유·상태)→있으시다(간접 높임) / 계시다는 사람 자체가 주어일 때만 쓴다.

NoteBase

문 14.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다. 구청에서는 ㉠도로 노면에 노란색 띠줄을 표시하거나 ㉡어린이 보호 또는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맑은 날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예지력(豫知力)이 떨어져서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① ㉠: 의미가 중복되므로 '도로 노면'을 '노면'으로 수정한다.

② ㉡: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리고'를 '그러나'로 수정한다.

③ ㉢: 중심 화제에서 벗어난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④ ㉣: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예지력(豫知力)'을 '추진력'으로 바꾼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스쿨존 안전 대책에 관한 짧은 글을 놓고 밑줄 친 부분 ㉠~㉣을 어떻게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단어의 의미 중복, 접속어의 호응, 중심 화제와의 관련성, 문맥에 맞는 어휘 선택이라는 네 가지 서로 다른 고쳐쓰기 기준이 선지마다 하나씩 걸려 있으므로, 각 밑줄이 앞뒤 문맥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제시된 수정 방향이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핵심 개념

의미 중복 수정: 한 단어 안에 이미 들어 있는 뜻을 다른 단어가 또 담고 있으면 둘 중 하나를 덜어 낸다(예: '노면'은 '길바닥'을 뜻하므로 '도로 노면'은 '도로'와 '노면'의 의미가 겹친다).
접속어 호응: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순접 관계(같은 방향)이면 '그리고', 역접 관계(반대·전환)이면 '그러나'를 쓴다.
통일성: 문단 전체의 중심 화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은 삭제해 글의 통일성을 높인다.
문맥에 맞는 어휘: 바꾸려는 단어가 앞뒤 내용과 의미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이미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를 억지로 다른 단어로 바꾸면 오히려 부적절한 수정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 '도로 노면에 노란색 띠줄을 표시하거나' → '노면'은 그 자체로 '길의 바닥 표면'을 뜻하므로 앞에 '도로'를 덧붙이면 같은 의미가 겹친다. 따라서 '도로 노면'을 '노면'으로 줄이는 수정은 의미 중복을 없애는 적절한 방안이다. (O)
② ㉡ 앞 문장은 '구청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대책 시행 내용이고, 뒤 문장은 '그런데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이다. 대책을 세웠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반대로 이어지는 역접 관계이므로, 순접 접속어 '그리고'를 역접 접속어 '그러나'로 고치는 것은 문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적절한 수정이다. (O)
③ ㉢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주의'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맑은 날 많이 일어난다'는 문장은 사고 발생과 날씨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내용으로, 스쿨존 안전 대책이라는 중심 화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문장을 삭제해 글의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적절한 수정이다. (O)
④ ㉣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이다. '예지력(豫知力)'은 다가올 일을 미리 헤아려 아는 능력을 뜻하므로, 위급 상황을 미리 알아채고 판단하여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맥에 정확히 들어맞는 단어이다. 반면 '추진력'은 일을 밀고 나가는 힘을 뜻하여 위급 상황에 대한 판단·대처 능력과는 의미상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에 이미 맞는 '예지력'을 '추진력'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문맥에 어긋나게 만드는 부적절한 수정이다. (X) →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①②③은 모두 실제로 문장에 존재하는 문제(의미 중복, 접속어 오호응, 화제 이탈)를 정확히 짚어 내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제안하고 있어 옳은 수정 방안이다. 반면 ④는 애초에 문맥에 어울리는 '예지력'을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잘못 진단하고,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 '추진력'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이 오류이다. 이처럼 고쳐쓰기 문제는 '수정 대상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가'와 '제안된 수정이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가'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쳐쓰기 유형 문제를 만나면 먼저 밑줄 친 부분이 의미 중복, 접속어 호응, 통일성(화제 이탈), 어휘의 문맥 적절성 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를 분류한다. 그다음 앞뒤 문장을 직접 이어 읽어 보아 수정 전 표현이 실제로 어색한지, 수정 후 표현이 그 어색함을 해소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미 자연스러운 표현을 굳이 다른 단어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의 유력한 후보이다.

암기 포인트

'노면'은 이미 '길바닥'의 뜻을 담고 있어 '도로 노면'은 의미 중복이다. 대책을 세웠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흐름은 역접이므로 '그러나'가 맞다. 중심 화제(스쿨존 사고 예방)와 무관한 문장(날씨와 사고의 관계)은 삭제 대상이다. '예지력(豫知力)'=미리 헤아려 아는 능력으로 위급 상황 대처 문맥에 어울리고, '추진력'은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바꾸면 오히려 틀린다.

NoteBase

문 1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머귀 잎 지고야 알겠도다 가을인 줄을
> 세우청강(細雨淸江) 서느럽다 밤 기운이야
> 천리에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① 이별한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② 반어법을 동원하여 가을의 정취를 잘 나타내고 있다.

③ 점강법을 활용하여 계절 감각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이별한 임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고전 시조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한 정서를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반어법·점강법 같은 수사법 용어나 원망 같은 다른 정서 어휘와 혼동하지 않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초장에서는 머귀(오동) 잎이 지는 것을 보고서야 가을이 온 줄 안다고 하여 계절의 변화를 사물을 통해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장에서는 가는 비 내리는 맑은 강(세우청강)의 서늘한 밤 기운을 느끼며 가을의 정취를 심화시킨다. 종장에서는 천 리 밖에서 임과 이별하고 잠들지 못한다고 하여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직접 드러낸다. 원망은 상대를 탓하는 감정이고 그리움·안타까움은 상대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감정으로 서로 다르며, 이 작품에는 후자만 나타난다. 반어법은 속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기법이고 점강법은 강한 인상에서 약한 인상으로 점차 낮추어 표현하는 기법인데, 이 작품에는 둘 다 쓰이지 않았다.

선지별 해설

① 종장 '천리에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에는 임을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안타까움만 나타날 뿐, 임을 탓하는 원망의 감정은 찾을 수 없다. →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다.
② 반어법(속뜻과 반대로 말하는 기법)은 이 작품에 쓰이지 않았다. 가을의 정취는 머귀 잎이 지는 모습과 세우청강의 서늘한 밤 기운 등 감각적 묘사로 직접 제시될 뿐, 겉뜻과 속뜻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③ 점강법(강한 인상에서 약한 인상으로 점차 낮추는 기법)은 쓰이지 않았다. 초장에서 중장으로 갈수록 가을의 서늘함이 오히려 더 뚜렷해지는 흐름이지, 감각이나 정서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④ 종장에서 화자는 천 리 밖에서 임과 이별한 상황임을 밝히고, 그 임을 잊지 못해 잠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원망(①)과 그리움·안타까움(④)을 혼동하기 쉽다. 원망은 상대를 탓하는 부정적 감정이지만, 이 시조는 임을 탓하는 말이 전혀 없고 임을 그리워하며 잠 못 드는 애틋한 마음만 드러낸다. 또한 반어법·점강법 같은 수사법 용어가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본문에 실제로 쓰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고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조나 고전 운문 감상 문제는 먼저 화자가 처한 상황(누구와 헤어졌는가, 무엇을 느끼는가)을 정리한 뒤, 선지에 제시된 정서 어휘(원망/그리움/안타까움 등)와 수사법 용어(반어법/점강법/영탄법 등)가 본문 표현에 실제로 대응하는지 하나씩 대조하며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망은 상대를 탓하는 감정, 그리움·안타까움은 상대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감정으로 서로 구별해 둔다.
반어법은 속뜻과 반대로 말하는 기법, 점강법은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점차 낮추어 표현하는 기법임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6. 밑줄 친 단어가 같은 품사로 묶인 것은?

① 이것 말고 다른 물건을 보여 주세요. 질소는 산소와 성질이 다른 원소이다.

②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떡국을 떠먹어 보았다.

③ 그 사과는 크고 빨개서 먹음직스럽다. 아이가 크면서 점점 총명해졌다.

④ 김홍도의 그림은 한국적이다. 이 그림은 한국적 정취가 물씬 풍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형태가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용한 문제이다. 겉모습(표기)이 같은 두 밑줄 단어가 실제로 같은 품사인지, 형태만 같고 품사가 다른 별개의 단어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묻는다.

핵심 개념

관형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은 겉모습이 같아도 품사가 다르다: 관형사는 활용하지 않고 뒤의 체언을 꾸미기만 하는 단어이고, 형용사의 관형사형은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ㄴ'이 붙은 활용형이라 서술형으로 바꿀 수 있다.
전성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동사 어간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붙어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더라도(예: 보기), 그 단어의 품사는 여전히 동사이다. 본동사 뒤에서 보조적 연결 어미 '-어' 뒤에 오는 보조 동사 '보다' 역시 동사이다.
같은 형태의 형용사와 동사가 별도의 단어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크다'는 형용사(크기가 크다)로도, 동사(자라다의 뜻)로도 쓰인다.
'-적' 파생어는 문맥에 따라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관형사로 쓰이기도 한다: 조사와 결합하거나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면 명사이고, 조사 없이 바로 뒤의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이것 말고 다른 물건을 보여 주세요'의 '다른'은 '어떤 것 이외의'라는 뜻으로 활용하지 않는 관형사이다(서술형으로 바꿀 수 없다). '질소는 산소와 성질이 다른 원소이다'의 '다른'은 형용사 '다르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은 활용형으로(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며 '다르지 않은'으로 바꿀 수 있다), 형용사이다. 두 '다른'은 품사가 다르므로(관형사 vs 형용사) 오답이다.
② '나 보기가 역겨워'의 '보기'는 동사 '보다'의 어간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해 문장에서 주어 자리(체언 자리)에 쓰인 것일 뿐, 전성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않으므로 품사는 여전히 동사이다. '철수는 떡국을 떠먹어 보았다'의 '보았다' 역시 동사 '보다'가 앞말에 보조적으로 연결되어 쓰인 보조 동사로, 품사는 동사이다. 두 '보다'는 모두 동사로 품사가 같으므로 정답이다.
③ '그 사과는 크고 빨개서 먹음직스럽다'의 '크고'는 크기가 크다는 뜻의 형용사 '크다'의 활용형이다. '아이가 크면서 점점 총명해졌다'의 '크면서'는 '자라다'라는 뜻으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크다'의 활용형이다(진행의 뜻을 더하는 '-면서'와 결합할 수 있고 '자라면서'로 바꿀 수 있다). 두 '크다'는 형태만 같을 뿐 형용사와 동사로 품사가 다르므로 오답이다.
④ '김홍도의 그림은 한국적이다'의 '한국적'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인 명사이다. '이 그림은 한국적 정취가 물씬 풍긴다'의 '한국적'은 조사 없이 바로 뒤의 체언 '정취'를 꾸미는 관형사로 쓰였다. 두 '한국적'은 명사와 관형사로 품사가 다르므로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형태가 같은 단어를 무조건 같은 품사로 오인하기 쉬운 함정이다. ①의 '다른'은 관형사와 형용사의 활용형이 우연히 같은 형태를 가진 것이고, ③의 '크다'는 형용사(크기가 크다)와 동사(자라다)로 뜻과 품사가 모두 다른 별개의 단어이다. 서술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지 않다'로 부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수 있다. ④는 '이다'가 붙어 서술어로 쓰이면 명사, 조사 없이 체언을 바로 꾸미면 관형사라는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두 단어의 형태가 같더라도 곧바로 품사가 같다고 판단하지 말고, 각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서술 가능한지, 활용하는지, 조사와 결합하는지, 무엇을 꾸미는지)을 따져 품사를 하나씩 확정한 뒤 비교한다. 특히 전성 어미가 붙은 단어는 문장 성분만 바뀔 뿐 품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암기 포인트

관형사는 활용하지 않고 체언만 꾸미는 단어, 형용사의 관형사형은 활용하는 서술어의 한 형태라는 점을 구별해 둔다. 명사형 전성 어미 '-기', '-(으)ㅁ'이 붙어도 품사는 동사·형용사 그대로라는 점, '크다'처럼 형태가 같아도 형용사와 동사로 각각 존재하는 단어가 있다는 점, '-적' 파생어는 조사와 결합·서술어로 쓰이면 명사이고 조사 없이 체언을 바로 꾸미면 관형사라는 점을 각각 암기해 둔다.

NoteBase

문 17. 밑줄 친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對話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能力을 갖추는 것도 重要하다. 특히 ㉠圓闊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共感하며 듣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상대의 처지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리고 들을 때, 대화와 ㉢妥協을 통해 서로의 ㉣利害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일상 어휘 '원활, 공감, 타협, 이해'를 한자로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밑줄 친 한자어의 음과 뜻을 지문 문맥에 맞추어 확인하고, 실제로 그 음에 대응하는 한자가 맞게 쓰였는지를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圓滑(원활)=둥글 원, 미끄러울 활: 일이 거침없이 잘되어 나감을 뜻한다. 闊(활)=넓을 활: 넓고 트임을 뜻하는 글자로 '원활'의 '활'과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별개의 한자이다. 共感(공감)=한가지 공, 느낄 감: 남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을 뜻한다. 妥協(타협)=온당할 타, 화합할 협: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을 뜻한다. 利害(이해)=이로울 이, 해로울 해: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선지별 해설

① ㉠ 圓闊: X → 지문의 '원활한 의사소통'에서 '원활'은 일이 거침없이 잘 진행됨을 뜻하므로 '둥글 원(圓)'과 '미끄러울 활(滑)'을 쓴 圓滑이 맞는 표기이다. 闊은 음은 같이 '활'로 읽히지만 '넓다'는 뜻의 글자로, 여기서 요구되는 '거침없이 잘됨'이라는 의미와 맞지 않아 잘못된 한자 표기이다.
② ㉡ 共感: O → '상대에게 공감하며 듣는다'는 문맥에서 공감은 남의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뜻하므로 共感 표기가 정확하다.
③ ㉢ 妥協: O →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한다'는 문맥에서 타협은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것을 뜻하므로 妥協 표기가 정확하다.
④ ㉣ 利害: O → '서로의 이해를 조정한다'는 문맥에서 이해는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므로 利害 표기가 정확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③④는 모두 지문 문맥의 의미와 한자의 뜻이 정확히 일치하여 옳은 표기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오답을 고르기 쉬운 지점은 ㉠의 闊이 '원활'의 '활'과 발음이 같다는 점인데, 발음이 같다고 해서 같은 뜻의 한자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圓滑의 '滑'(미끄러울 활)과 闊(넓을 활)은 서로 다른 글자이며 뜻도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한자어를 볼 때 먼저 우리말 음과 뜻을 문맥에서 확정한 뒤, 그 뜻에 맞는 한자인지를 확인한다. 특히 동음이의 한자(음은 같지만 뜻과 글자가 다른 경우)가 자주 함정으로 출제되므로, 음만 같은 글자로 착각하지 않도록 뜻까지 함께 짚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암기 포인트

원활(圓滑)=둥글 원+미끄러울 활, '일이 거침없이 잘됨'. 闊(넓을 활)은 원활의 활과 음만 같을 뿐 다른 글자임에 주의한다. 공감(共感), 타협(妥協), 이해(利害)는 문맥 그대로의 뜻으로 쓰이는 정확한 표기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롤랑 바르트는 『기호의 제국』에서 "우리 얼굴이 '인용'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의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 등은 모두 미디어로부터 '복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가가 다른 책의 구절들을 씨앗글로 이용하는 일을 계기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듯, 우리는 남의 표정과 스타일을 복사한다. 이렇게 다른 것을 복제하고 인용하는 문화는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성형의 트렌드가 확산되는 현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성형을 하는 사람은 쇼핑하듯 트렌드가 만든 미인 얼굴을 구매한다.

① 롤랑 바르트는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예찬론자이다.

②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대중화가 사람들의 미의식을 세련되게 했다.

③ 모방이나 복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④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대중화로 인해 성형 수술이 유행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화제와 주제문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글의 앞부분에 제시된 인용구와 예시(헤어스타일, 패션, 표정, 성형)를 상위 개념으로 묶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특정 예시나 세부 진술을 중심 내용으로 착각하지 않는지를 점검한다.

자료 읽는 순서

먼저 첫 문장의 인용구("우리 얼굴이 '인용'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란 말인가?")를 통해 글쓴이가 말하려는 방향(우리의 모습이 남을 복제·인용한 결과라는 것)을 잡는다. 이어지는 문장들(헤어스타일·패션·표정의 복제, 작가의 인용에 빗댄 비유)은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고, "이렇게 다른 것을 복제하고 인용하는 문화는 확산되고 있다."가 이 단락의 핵심 진술(주제문)이다. 마지막의 성형 트렌드 이야기는 앞 문장에서 말한 '복제·인용 문화의 확산'을 보여 주는 구체적 사례일 뿐이므로, 글 전체의 결론이 아니라 예시로 읽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롤랑 바르트의 말은 우리의 얼굴이나 표정이 남의 것을 '인용'한 결과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 그가 모방·복제 문화를 예찬한다는 내용은 글에 없다.
② X — 글은 모방·복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현상을 설명할 뿐, 그로 인해 사람들의 미의식이 '세련되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③ O — 글 중반의 "이렇게 다른 것을 복제하고 인용하는 문화는 확산되고 있다."가 글 전체의 핵심 진술이며, 앞의 예시(헤어스타일·패션·표정)와 뒤의 예시(성형 트렌드)가 모두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이 중심 내용에 가장 가깝다.
④ X — 성형 수술 유행은 모방·복제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 그 사례 자체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은 아니다. 이를 중심 내용으로 고르면 글의 범위를 성형이라는 소재로 좁혀 읽는 오류가 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글 마지막에 등장하는 성형 이야기를 결론으로 착각해 ④를 고르는 것이다. 성형 트렌드는 앞서 말한 '복제·인용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는 예시일 뿐, 그 예시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다. 또한 인용문의 주체인 롤랑 바르트를 예찬론자로 단정한 ①이나, 글에 없는 긍정적 평가를 끼워 넣은 ②처럼 본문에 근거가 없는 진술도 배제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에서는 예시로 제시된 구체적 소재(여기서는 헤어스타일·패션·표정·성형)에 이끌리지 말고, 그 예시들이 공통적으로 뒷받침하는 상위 진술(주제문)을 찾아야 한다. 글의 흐름상 예시들 사이, 혹은 예시들 앞뒤에 놓인 일반화된 문장이 중심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중심 내용 파악형 문제는 마지막 문장이 항상 결론은 아니며, 구체적 사례(성형, 패션 등)보다 그 사례들을 아우르는 일반 진술(복제·인용 문화의 확산)이 중심 내용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생 생물과 숙주는 날을 세운 창과 무쇠를 덧댄 방패와 같다. 한쪽은 끊임없이 양분을 빼앗으려 하고, 한쪽은 어떻게든 방어하려 한다.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기생 생물은 가능한 한 숙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는 것이 유리하지만 숙주가 죽게 되면 기생 생물에게도 오히려 해가 된다. 기생 생물에게 숙주는 양분을 공급해 주는 먹잇감인 동시에 살아가는 서식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생 생물은 최적의 생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중용의 도'를 깨달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쯤 되면 기생 생물은 자신의 종족이 장기적으로 번성하려면 많은 양분을 한꺼번에 빼앗아 숙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빼앗아 숙주를 살려 둔 상태로 장기간 수탈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보통, 미생물은 인간과 처음 마주치게 되면 낯선 숙주인 인간을 강력하게 공격한다. 설상가상으로 낯선 미생물을 접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의 면역계는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데 서투르기 때문에 낯선 미생물과 인간의 초기 전투는 미생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 2세기경 로마 제국에서는 알 수 없는 역병이 두 번에 걸쳐 유행했다. 이 역병의 대유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로마는 4세기경 게르만족이 침입했을 때 이미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학자들은 지중해의 패권을 쥐었던 로마를 속으로부터 골병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을 홍역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유아 질환으로 자리 잡은 홍역의 위력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던 것이다. 소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홍역 바이러스가 처음 인간의 몸에 유입되었을 때 인간은 이에 대한 항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유행이 몇 번 지나가고 나면 점차 독성이 약해진다. 이는 미생물이 숙주를 장기간 착취하려고 한발 물러서는 한편 숙주가 항체를 만들어 내면서 미생물 퇴치에 한발 나아감에 따라 저울의 추가 균형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① 숙주는 기생 생물의 서식처이다.

② 홍역은 로마의 전투력 약화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③ 홍역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숙주가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④ 대체로 미생물과의 초기 전투에서 인간은 일방적으로 패배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지문은 기생 생물과 숙주의 관계를 창과 방패에 빗대어 설명하고, 이를 미생물과 인간(로마 제국의 홍역 사례)에 적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선지와 하나씩 대조하여 지문 내용과 어긋나는 진술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발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지문과 일치하는 선지는 정답에서 제외하고 지문과 모순되거나 지문에 없는 내용을 담은 선지를 골라야 한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먼저 1문단에서 기생 생물과 숙주의 관계(숙주=먹잇감이자 서식처, 숙주를 죽이지 않을 만큼만 수탈)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2문단에서 미생물과 인간의 관계를 같은 논리로 설명하는 부분, 즉 초기 전투는 미생물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다는 부분과 로마 제국이 홍역으로 인해 게르만족 침입 당시 이미 기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홍역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해지는 이유를 설명한 문장, 즉 '미생물이 물러서는 것'과 '숙주가 항체를 만들어 내는 것'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 균형점으로 이동한다는 부분을 찾아 각 선지와 대조한다.

선지별 해설

① 숙주는 기생 생물의 서식처이다. → O. 지문에 '기생 생물에게 숙주는 양분을 공급해 주는 먹잇감인 동시에 살아가는 서식처이기 때문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② 홍역은 로마의 전투력 약화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 O. 지문에 '역병의 대유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로마는 4세기경 게르만족이 침입했을 때 이미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고 하였고, 이 역병의 장본인을 홍역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③ 홍역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숙주가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 X. 지문은 독성 약화의 원인으로 '미생물이 숙주를 장기간 착취하려고 한발 물러서는 것'과 '숙주가 항체를 만들어 내면서 미생물 퇴치에 한발 나아가는 것'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즉 숙주가 항체를 만들어 내는 능동적 작용이 균형점 이동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숙주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진술은 지문 내용과 어긋난다. → 숙주의 역할이 미미하다 → 숙주도 항체 생성을 통해 균형점 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④ 대체로 미생물과의 초기 전투에서 인간은 일방적으로 패배했다. → O. 지문에 '낯선 미생물과 인간의 초기 전투는 미생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②④는 지문의 문장을 그대로 대응시키면 쉽게 일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선지이지만, ③은 지문 뒷부분에서 독성 약화의 원인을 '미생물의 후퇴'와 '숙주의 항체 생성' 두 요인의 결합으로 설명한 문장을 놓치면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지문에서 두 주체가 함께 언급된 문장은 어느 한쪽의 역할만 부각한 선지가 나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 이유는', '~하기 때문이다'로 끝나는 지문의 결론 문장은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주체 둘 이상)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선지가 그중 한 원인의 비중만 축소·과장하고 있지 않은지 대조한다. '역할이 미미하다', '중요하지 않다'처럼 비중을 단정하는 선지는 지문에서 해당 주체가 실제로 어떤 서술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지문에 두 주체(기생 생물·숙주 또는 미생물·인간)의 상호작용이 함께 서술된 결론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을 이루는 두 요인을 모두 짚어 두고 선지가 어느 한쪽만 과소평가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둔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르릉~ 쾅!' 하고 천둥이 울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한다. 그래서 '뇌동(雷同)'이란 말이 생겨났다. 내가 우렛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간담이 서늘하였다. 하지만 반복해서 나의 잘못을 고쳐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뒤에야 몸이 조금 편안해졌다.

다만 한 가지 꺼림칙한 일이 있다. 내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화부(華父)가 지나가는 미인에게 눈길을 주는 일'이 나오는 대목을 읽고는 그 일에 대해 비난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돌려 달아났다. 그러나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다는 것이니, 이것만은 스스로 미심쩍은 일이다.

일반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남이 나를 칭찬하면 아주 기뻐하고, 비방하면 몹시 언짢아한다. 이것은 비록 우레가 칠 때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지만,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옛사람 중에는 깜깜한 밤에도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 내가 어찌 이런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는가?

— 이규보, 『뇌설』 —

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필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며 제시하고 있다.
③ 권위 있는 자의 말을 인용해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④ 문답 형식을 통해 독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이규보의 수필 『뇌설』을 제시하고 글쓴이가 내용을 전개하는 서술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화제 전환과 결말 처리 방식을 근거로 각 선지의 진술이 실제 글의 전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체험을 통한 깨달음의 제시란 글쓴이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우렛소리를 들은 경험, 미인을 보고 고개를 돌린 경험, 칭찬과 비방에 따라 감정이 흔들린 경험)을 순서대로 서술하면서 그 경험 끝에 얻은 깨우침이나 반성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끌어와 자신의 생각과 견주는 비교, 권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용, 묻고 답하는 대화 구조를 반복하는 문답과는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글쓴이는 천둥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워한 경험, 미인을 보고 고개를 돌린 경험, 남의 칭찬과 비방에 마음이 흔들린 경험을 차례로 제시한 뒤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함을 깨닫는다. 개인적 체험에서 깨달음을 이끌어 내는 서술이 실제로 나타나므로 O이다.
② 제시문에 등장하는 화부(華父)의 일화나 옛사람의 이야기는 글쓴이 자신의 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예시로 활용될 뿐, 필자의 생각과 대비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란히 세워 비교하는 구조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X이다. → 비교 구조 없음.
③ 『춘추좌씨전』의 일화가 언급되지만 이는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해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 아니라 옛 기록 속 사례를 자신의 경계로 삼은 것이므로 X이다. → 권위자의 말 인용 아님.
④ 글의 마지막에 '내가 어찌 이런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는가?'라는 구절이 있으나 이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수사적 물음이며, 묻고 답하는 형식이 글 전체에 반복되어 독자의 깨달음을 유도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X이다. → 문답 형식의 반복 없음.

오답 포인트

②는 글 속에 등장하는 일화나 옛사람의 사례를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착각해 비교 구조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 일화들은 모두 글쓴이 자신의 반성을 이끌어 내는 소재일 뿐 견해의 대비가 아니다. ④는 글 끝의 의문형 문장 하나를 보고 문답 형식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답이 이어지지 않는 일회성 수사 의문문은 문답 형식으로 보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는 글에 등장하는 일화나 인용이 '비교'인지, '예시를 통한 자기 성찰'인지, '권위자의 말 인용'인지부터 구분한다. 또한 의문형 문장 하나만으로 문답 형식이라 단정하지 말고, 실제로 질문과 답이 짝을 이루며 반복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체험 후 깨달음 제시: 글쓴이 자신의 경험 나열 뒤 반성·교훈 도출. 비교: 필자와 타인의 생각을 나란히 대비. 인용: 권위자의 말을 직접 끌어와 주장 강조. 문답: 질문과 답이 짝을 이루며 반복되는 구조.

NoteBase